

‘나는 성기수 박사를 좋아한다’

강경식 의원(전 대통령 비서실장)

나는 성기수 박사를 좋아한다.

만나면 전혀 부담이 없고 이런저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할 때 성 박사를 만나는 것은 내게 카타르시스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사람들은 몸이 찌뿌드드할 때 사우나를 많이 간다.

성기수 박사는 내게 있어 정신이 찌뿌드드할 때 이를 풀어 주는 존재이다. 가벼운 변화로 골치아픈 현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얘기도 구질구질하게 길게 할 것이 없다. 단도 직입적으로 핵심적인 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성 박사는 이처럼 단순, 명쾌, 평이한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생각하고 행동함에 변함이 없다. ‘여여하다’ 고나 할까. 이런 경지를 옛날 사람들은 도통했다고들 한다. 성 박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와 교분을 맺어 온 세월이 적지 않지만 아직 나는 그의 전공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른다. 대충 자연과학 분야라고 알 뿐이다. 이는 물론 나의 무관심에도 기인하지만 그와의 화제가 자연과학쪽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의식하지 못하고 지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것이 경제분야의 문제이든, 교육개혁에 관한 것이든, 교통문제이든, 행정전산화 문제이든 지 간에 거칠 것이 없다.

한결같이 명쾌한 결론이 나온다. 그 결론도 일관성이 있고 또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더욱 좋아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후진국에서는 분야가 달라질 때마다 게임의 룰이 달라지는 사회다. 선진국은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어느 분야에서나 그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복잡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사회이다. 그런 면에서 성 박사는 ‘선진국형’이다. 선진국에서 지내야 적합한 사람이다.

동양에서는 ‘합리적 사고방식’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경우가 너무 밝은 사람은 오히려 ‘비사교적’이라는 딱지가 붙을 정도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즉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사람이 원만하고 사람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하다는 말로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성 박사가 그래도 오늘날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여러가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성 박사와 처음 만난 때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으로 함께 일하게 된 것은 1969년경 예산업무를 전산화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성 박사는 KIST 전산실장으로 있었고 나는 경제기획원 예산국 총괄과장으로 있으면서 예산과목의 분류를 체계화하는 일은 내가 책임지고 그에 따른 예산내용의 전산화 작업은 성 박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홍릉의 메인 컴퓨터와 연결되는 터미널을 광화문에 있는 예산국에 설치하였다. 광화문과 홍릉사이를 전화선을 제대로 신뢰할 수 없었던 당시가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터미널을 직접 시찰하였고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컴퓨터교육을 할 것을 지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컴퓨터의 활용’이라는 영화를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벌써 25년전의 일이 되었다.

그후로도 성 박사와 여러번 함께 일하였다. 70년말 내가 기획차관보로 있을 당시, 총복을 대상으로 한 행정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함께 추진한 일도 있었다. 국가적 효율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행정 업무를 전산화한 것이다. 또 80년대 초반 금융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전산준비'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실명제 반대론자들은 전산준비의 불가능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평소에 컴퓨터에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컴퓨터 전문가가 된 것이다. 성 박사와 전산화 가능성은 물론 실명제 실시 방침을 발표하기 앞서 상의를 하였다. 국회에서도 핵심문제로 제기되었으나, 증인으로 나선 성 박사의 '문제없다'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이 논의가 결말이 났던 일은 지금도 매우 통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성 박사가 어느덧 회갑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생은 60부터 라고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성 박사는 생물학적 연령에 관계없이 만년 청년이다. 그렇기에 나는 지난날의 성 박사 보다는 앞날의 성 박사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성 박사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없는 이 땅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그만큼 더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이런 불만이 제대로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결코 나만의 염원은 아닐 것이다. 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 염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